



‘제주기상 100주년 기념’ 제막식이 지난달 28일 제주지방기상청에서 열렸다. 이상국기자

■ ‘제주기상 100년, 기후위기와 제주의 미래’ 대토론회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 대응해야”

지구온난화 등 기상 이슈 대응 방안 마련 촉구
제주도 기상기후 선도모델 개발 필요성도 제언

제주 기상관측 100주년을 기념해 진행된 ‘제주기상 100주년 기념 문화제’의 일환으로 기후위기 시대 제주의 미래 기상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제주지방기상청(청장 전재욱)은 지난달 28일 오후 2시부터 제주시 아스타호텔에서 ‘제주기상 100년, 기후위기와 제주의 미래’라는 주제로 대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에 이어 패널 토의를 통해 제주의 과거와 현재의 기상과 미래 기상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제주지방기상청 김중기 예보과장은 ‘제주기상 100년, 기상 이슈와 대응’이라는 주제로 제주지방기상청이 걸어온 100년의 시간의 의미를 조명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1923년 근대 기상관측 이래 이래 산업화, 디지털 혁명 등 사회적 변화를 거치면서 1993년 제주 독자적인 예보를 시작으로 2008년 동네예보, 2020년 영향예보를 생산하고 바다에서부

터 한라산 정상 백록담까지 입체적인 관측망을 구성해 제주지역 맞춤형 기후서비스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래 시대 변화에 발맞춰 신재생에너지, 도심항공교통(UAM) 등 새로운 수요에 따른 대응을 위해 양질의 기상정보를 제공하며 국민과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국립기상과학원 변영화 기후변화예측연구팀장은 오는 2040년까지 가까운 미래에 지구 평균온도가 1.5℃ 상승하며 온난화에 따른 극한고온, 호우, 가뭄의 빈도와 강도 증가 등 극한의 변화는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재난재해와 연관된 극한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탄소중립, 1.5℃ 지구온난화 제한 목표 및 빠른 시일 내에 강도 높은 CO2 감축 등 온난화에 적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기술원 강민형 원장은 제주의 미래사회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탄소중립 정책과 제도를 설명하고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기후변화 대응 비전 및 목표를

제시하며 제주도 Net-Zero 달성을 위한 기상기후 선도모델의 개발 필요성을 제언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변화하는 제주 기후위기의 미래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한 패널 토의가 이어졌다.

한편 제주지방기상청은 대토론회에 앞서 ‘제주기상 100주년 기념 문화제’를 개최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1923년 5월 1일 제주시 건입동 현재의 위치에서 제주측후소를 창설하고 1992년 제주기상대, 1998년 제주지방기상청으로 발전하며 100년 동안 제주지역의 기상업무를 수행해 왔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기후 위기 시대 폭염과 한파, 가뭄 등 다양한 기상이변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과 같은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재욱 제주지방기상청장은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한 제주기상 100년은 제주도민들과 회로 애락을 같이한 감동의 스토리”라며 “다가오는 새로운 100년도 제주도민의 삶이 녹아든 기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긴축예산 편성... 맞춤형 교육복지 중점”

도교육청 제1회 추경안 80억 증액... 거점통합돌봄센터 구축·통학 지원

제주도교육청이 1조6015억원 규모로 2023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는 당초 예산 1조5935억원에 비해 80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김광수 교육감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추경안 편성 내용을 밝혔다.

이번 추경은 올해 1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시행으로 교부금 재원이 감소함에 따라 당초 예산과 비교해 0.5% 늘어나는 데 그쳤다.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 수입 161억원이 감액된 반면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41억원, 기타이전수입 18억원, 자체수입과 기타 120억원, 전입금 62억원이 증액분으로 구성됐다.

김 교육감은 “세입 재원의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긴축예산으로 편성했다”며 “불필요한 세출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미래형 디지털 교수학습 기반 조성 등 현안 사업에 중점을 뒀다”고 했다.

이 중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지원 사업으로는 초등돌봄교실 운영과 거점통합돌봄센터 구축에 48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 27억원, 학생 통학 지원 25억원,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 18억7000만원, 특수교육 복지과 특수교육 여건 개선에 14억5000만원을 각각 사용할 예정이다.

미래형 디지털 교수학습 기반 조성과 미래 인재 역량 제고 사업으

로는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과 유무선 인프라 구축 11억원, 디지털 선도 학교 운영 지원 10억원, 학생 대상 국외 체험 연수 7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 조성사업으로는 급식 기구 환경 개선에 6억원, 유해·위험 작업 환경 개선비 지원에 5억원, 급식 종사자 폐암 검진과 급식실 환기 설비 성능 점검에 1억6000만원, 급식 환경개선 등 시설 사업에 22억7000만원의 예산을 켜었다.

김 교육감은 “어렵게 편성한 예산인 만큼 질 높은 돌봄과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 미래형 디지털 기반 조성 등 학생들의 교육복지와 미래 교육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선희기자

제주~인천 바닷길 특하면 ‘스톱’

비온드 트러스트호 지난 24일부터 선박점검 중
지난 2021년 취항 후 6차례 걸쳐 운항 차질 반복

제주-인천 카페리 여객선이 한달 만에 다시 멈춰섰다.

30일 항만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2만 7000t급 카페리 ‘비온드 트러스트호’가 엔진에 이상이 발생해 출항 2시간 만에 회항했다. 이후 현재까지 선박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선사측은 일단 오는 5월 6일까지 휴항을 결정했지만 원인 규명, 재발 방지책 마련 등 안전 점검이 완료될 때까지 선박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 여객선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7년 8개월만인 2021년 12월부터 제주-인천 항로에서 취

항했다. 하지만 취항 이후 최근까지 엔진 이상 등으로 모두 6차례에 걸쳐 결항 또는 지연 출항 등 운항 차질이 반복됐다.

지난 2월 4일에는 엔진 부품 결함으로 7주간 결항했고, 안전성 검증 을 거쳐 지난 3월 29일 운항을 재개했으나 한달 만에 다시 엔진에 이상이 발생해 운항이 중단된 상태다.

이 여객선은 길이 170m·너비 26m·높이 28m로, 승객 810명·승용차 48대·컨테이너 65개 등을 싣고 최대 25노트(시속 46km)로 운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박소정기자

페이퍼컴퍼니 내세워 입찰 참여?

도, 문화재 수리업체 34곳 불법 입찰 전수조사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일부 문화재 수리업체가 서류상 회사인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별첨 입찰’에 참여한다는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오는 6월까지 도내 34개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세계유산본부는 매해 정기적으로 문화재 수리업체에 대한 서류

조사를 실시해 왔다.

하지만 서류상 회사를 동원해 별첨업체 입찰에 참여한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일부 업체에 대한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촘촘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특별 전수조사는 34개 문화재 수리업체 사무실을 방문해 등록서류 및 적정운영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

조사와 도내 98명의 문화재 수리기술자 및 기능자를 대상으로 자격대여 및 중복취업 등을 확인하는 면담 조사로 진행된다.

올해 문화재 수리사업에 입찰돼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사가 이뤄진다.

도세계유산본부는 특별 전수조사를 위해 4개조 13명으로 이뤄진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위반업체 및 기술자 등에 대해서는 고발, 등록취소 등 강력한 후속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고대모기자

합 축 격
CONGRATULATIONS

제12회 변호사시험



부종욱
(대기고 25회졸업/고려대/부산대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부 : 부성현 (前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모 : 양미영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외삼촌 양후탁·양후현 외 가족일동

우 축 승
CONGRATULATIONS

KLPGA 2023 드림투어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



임진영 프로(대방건설)
부 : 임승찬 (현대해상 동영대리점 애월읍 하가리)
모 : 김정림 (정관장 노형점, 안덕면 창천리)

KLPGA 2023 드림투어 3차전에서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平澤林氏錦湖公派大司憲公門中會
會長 林正兩 外宗親一同

당 축 선
CONGRATULATIONS

수협중앙회 비상임이사



김경필
(제주시수협 조합장)

수협중앙회 비상임이사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세화중학교 34회 동창회
회장 김승근 외 친구일동

합 축 격
CONGRATULATIONS

제12회 변호사시험



안재훈
(부 : 안우진 · 모 : 김희숙)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큰아빠 안성진, 작은아빠 안명진
고 모 안영진, 안영희, 안영숙